

2019년 북한의 산업 및 실물경제 동향

이석기 |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sklee@kiet.re.kr

I. 개관

2019년 북한의 산업 및 실물부문은 대북 경제제재의 부정적인 영향이 누적됨에 따라, 대외무역이 증가하고 건설활동이 확대되는 등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비해 개선되지는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중 지속된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는 2019년에도 북한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북한경제의 향방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대북 경제제재가 북한의 산업 및 실물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2018년과는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금속소재와 기계류의 수입 금지가 2년 이상 지속됨에 따라 기계공업과 금속가공 부문의 생산 여건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다시 대규모 설비투자를 위축시키고 광업 등 산업부문에 대한 기계와 부품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수입 통제에 의한 북한산업의 질적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대중 수출과 수입이 각각 88%와 33% 감소한 2018년과 달리 2019년 1~11월 간에는 전년 동기 대비 수출과 수입이 11%와 16% 증가하였다. 수출은 절대 규모가 워낙 줄어들어서 소폭 증가가 큰 의미는 없지만, 수입 규모가 16% 증가한 것은 산업 및 실물부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북한의 수입 증가는 섬유류와 화학제품, 플라스틱제품 등 중간재와 식품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원부자재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섬유류 및 식품가공업 등 북한의 경공업의 생산이 유지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핵심 소재와 기계류의 수입 통제에 따라 북한산업의 전반적인 질적 저하가 지속되고 있지만, 원부자재의 수입 증가에 따라

일부 산업에서는 생산 수준이 유지되거나 증가했을 가능성도 있다.

반면, 대북 경제제재의 직접적인 영향이 적은 일부 산업이나 부문은 전년에 비해 성장했을 가능성도 있다. 강수량 감소에 따라 수력발전은 줄어들었지만 설비 확충 및 개보수와 연료탄 공급 증가 등으로 화력발전량이 증가하여 총 발전량은 소폭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발전소와 관광단지 조성 등 대규모 건설사업의 증가로 건설활동이 전년 대비 적지 않게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북 경제제재로 상업 및 운수 부문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관광객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는 음식 및 숙박업의 성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북 경제제재의 부정적 영향이 전년 수준으로 유지되고, 기계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추가적으로 후퇴하였지만 수입을 중심으로 대외무역이 소폭 증가하고, 농업, 전력, 건설 및 관광 등 일부 산업이 개선됨에 따라 2019년 북한의 산업 및 실물부문은 전년에 비해 후퇴 폭이 크게 줄어들어 소폭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II. 2019년 북한의 산업 및 실물경제 동향

1. 전력 및 광업

가. 전력

경제개발 5개년 전략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발전부문에의 대안 자원 투입 증가 및 양호한 강수량 등의 영향으로 2018년 북한의 전력 생산은 중대형 수력발전부문을 중심으로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 추정치에 의하면, 2018년 북한의 발전량은 수력발전이 상당 폭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발전량이 전년 대비 5.7% 증가하였다. 2019년에는 겨울과 봄철 강수량의 감소로 수력발전량이 다시 마이너스가 된 것으로 추정되지만,¹⁾ 북창화력 발전소 발전 능력 확충 효과의 본격화와 주요 화력발전소의 설비 개보수 및 현대화, 그리고 연료탄 공급 증가 등으로 화력발전량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2019년 북한의 발전량은 전년 수준이거나 소폭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 노동신문 등 북한 공식매체는 수량의 부족으로 수력발전의 발전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화력발전을 통해서 이를 상쇄해야 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수력과 화력 양 부문에서 발전량의 증가에 대한 성과 보도가 적지 않았던 2018년과 달리 2019년에는 발전량 증가에 대한 성과 보도가 거의 없었다.²⁾ 발전량 제고를 위한 연료탄 공급 확대가 독려되는 가운데 발전부문의 성과 보도는 화력발전소의 개보수와 현대화에 집중되었다. 북창화력발전소, 평양화력발전소, 동평양화력발전소, 순천화력발전소 등 거의 모든 화력발전소의 대규모 설비 보수 성과가 집중적으로 보도되었다.³⁾

화력발전소의 대규모 개보수와 함께 단천발전소 및 어랑천발전소 등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투자도 확대되었다. 중대형 발전소를 통한 발전량 제고 노력과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노동신문에 의하면 2019년에 태양광, 바이오, 석탄가스화, 풍력 등을 통하여 수만kW의 발전능력을 조성하였으며, 이 중 태양광이 86%, 바이오와 석탄 가스화가 각각 7.7%와 4.7%를 점한다고 한다.⁴⁾⁵⁾

나. 광업

대북 경제제재로 북한의 광업의 수출부문은 2018년에 이미 꺾멸적인 타격을 입었으며, 제재가 유지된 2019년에도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⁶⁾ 수출부문과 내수부문이 어느 정도 분리된 석탄광업의 경우 에너지원 자급을 위한 석탄 생산확대 노력과 금속 및 기계류 수입 통제에 따른 자재와 부품 공급의 어려움 등 상반된 요인들이 작용하여 생산량이 증가하더라도 소폭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화력발전용 석탄 공급 확대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석탄부문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었지만 석탄 생산 성과에 대한 보도는 거의 없었다. 이례적으로 석탄부문에 대한 금속과 기계, 화학 부문의 지원이 계획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석탄부문의 성과 보도는 생산량보다는 새로운 탄전 개발에 집중되었다. 수출부문과 내수부문이 광산 단위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철광업 등 비석탄광업의 경우 지속되는 수출 통제가 내수용 생산을 위한 기반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철광 등 수출이 통제된 금속광업의 경우 내수용 생산도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수력발전소나 관광단지 등 건설의 확대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석회석 등 내수용

2) 이는 발전부문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성과보도의 극단적인 감소가 실제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2019년 북한경제는 상당한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이러한 현상이 보도 정책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면 성과 보도의 감소로 북한산업의 후퇴를 추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3) 『노동신문』, 「발전설비 대보수에 역량을 집중」, 2019. 9. 24; 『노동신문』, 「겨울철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자」, 2019. 10. 3.

4) 『노동신문』, 「다양한 에너지를 적극 개발이용」, 2019. 11. 4.

5) 여기서 석탄 가스화는 중소 공장 등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 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발동기의 연료를 종래의 휘발유에서 석탄 가스로 대체하거나 휘발유와 가스를 혼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북 경제제재로 인한 석유제품의 수입 감소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노동신문은 평안남도의 100여 개 단위에서 무연탄 가스화 발동발전기를 도입하여 5,500여kW의 발전 능력을 조성하였다고 보도하는 등 연중 내내 중소 단위 공장·기업소 등에서의 석탄 가스화를 통한 에너지원 전환 성과를 선전하였다.

6) 해상을 통한 석탄의 비공식적인 수출 사례가 보도되기도 하였지만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비금속 광업은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제조업

가. 중화학 공업

2019년 북한의 중화학 공업은 기계공업을 중심으로 전년에 비해 소폭 마이너스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속 및 기계류의 수입을 통제한 대북 경제제재가 설비투자보다는 건설투자에 치중한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며, 동시에 이러한 경제정책 기조에 의해 소재부문보다 기계부문이 상대적으로 더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금속공업은 지난해 수준이거나 소폭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책제철소에서 코크스탄을 사용하지 않는 산소열법제철법으로의 전환이 완료된 이후 북한의 제철산업은 경제제재의 직접적인 영향은 크게 받지 않게 되었다.⁷⁾ 다만, 철광석의 수출 중단에 따른 철광산의 생산 기반 약화와 철광석 공급 감소, 선철과 철광석의 수출 중단 및 부품류 수입 중단에 따른 유지보수의 어려움 등 경제제재의 간접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다. 한국은행 추정치 기준으로 2018년에 이미 금속부문 생산이 두 자리 수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에 의한 추가적인 생산 감소 여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단천발전소 건설이나 양덕온천관광지구 건설 등 2019년 중앙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대규모 건설활동은 금속 소재의 수요를 증가시켜 일정 수준의 생산을 지속할 수 있게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정 여건과 수입 통제 등의 영향으로 금속부문에 대한 투자는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책제철소와 황해제철소 등 대규모 제철소의 설비 전환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화학공업은 보도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비료와 의약 부문에 보도가 집중되었다. 별다른 성과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화학부문 투자는 순천린비료공장 건설에 집중되었으며, 탄소하나화학공업 창설을 위한 순천화학연합기업소의 메탄올 생산공정 건설은 설비 수입 및 기술적 문제 등으로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기계공업은 대북 경제제재, 특히 수입 통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부문인데,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기계공업은 중국으로부터의 부품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대북 경제제재로 기계부품의 수입이 크게 줄어들어 따라 농기계를 비롯한 산업용 기계와 수송기계의 생산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을

7) 황해제철연합기업소가 산소열법용광로를 통한 제철법을 완성한 이후 김책제철연합기업소도 2017년 산소열법용광로 건설을 완료하고 2018년에 제철을 시작하였다. 김책제철소는 산소열법용광로의 생산이 시작된 이후 기존 용광로의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북한은 코크스 제철법을 종식하고, 비코크스 제철법을 완성했다고 선전했다.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투자가 설비투자보다 건설투자에 집중됨에 따라 생산이 제한된 국내의 금속 소재가 주로 건설용으로 공급되고, 수입 제재로 압연제품이나 강철제품의 수입이 중단됨에 따라 북한 기계공업의 설비나 부품 제작 역량도 크게 약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제품 개발이나 생산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기계공업이 2018년에 이어서 2019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신문은 기계공업이 전력생산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석탄공업 부문 지원계획을 크게 미달하였다고 보도하기도 하였다.⁸⁾

토목공사를 비롯한 대규모 건설사업의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로 시멘트를 비롯한 건설자재부문은 생산이 적지 않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시멘트는 김정은 위원장이 공급 확대를 요구함에 따라 7월 이후 큰 폭으로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타일 등 여타 건설자재부문도 국산화와 함께 생산 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다수의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생산 능력 확장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천리마타일공장 등에서 건재 국산화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산업 전반의 생산 성과 보도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신년사 대신 발표된 전원회의 결정문에서 ‘금속, 석탄, 건재, 건설을 비롯한 거의 모든 업종에서 생산이 증가’하였다고 밝혔는데, 이는 금속, 건재 부문에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북한 제조업에서 비중이 큰 기계와 화학공업에서 성과가 없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 경공업

2019년 북한의 경공업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거나 소폭 성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섬유·의류 및 식품가공업 등 북한의 경공업은 중간재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는데, 대북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수입 통제 품목이 아닌 경공업용 원부자재의 수입은 섬유류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북한의 섬유류 수입은 대북 경제제재로 섬유류 임가공 수출이 중단됨에 따라 2018년에 약 38% 정도 감소하였다. 그런데 2019년 1~9월 기간 중 대중 섬유류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6% 증가하였다. 이러한 섬유류 수입 증가가 비공식적인 의류 임가공의 증가에 의한 것인지 혹은 내수용 의류 생산을 위한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2019년에 북한의 섬유류 생산이 증가하였을 가능성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식품류 및 식품가공업의 대중수입은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2019년에는 품목별로

8) “탄차와 베어링, 소철레일, 철판과 쇠바줄, 압축기 등 설비, 자재를 맡은 기계공업성, 금속공업성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는 불리한 생산조건을 타 개하지 못하여 계획을 심히 미달하고 있다” (『노동신문』, 「연관단위들의 설비, 자재보장실태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2019. 10. 22).

등락이 엇갈리는 가운데 최종재의 성격이 강한 빵과 사과는 수입이 감소한 반면, 중간재의 성격이 강한 밀가루와 당류 및 설탕은 수입이 증가하였다. 이는 대북 경제제재와 그에 따른 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후 북한 식품가공산업 생산이 크게 위축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2018년 감소하였던 화학제품과 플라스틱제품의 수입이 2019년에는 큰 폭으로 증가한 점도 생활용품을 비롯한 경공업의 생산이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국은행 추정치에 의하면 북한의 경공업은 2018년에 중화학공업보다는 소폭지지만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는데, 경제제재가 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의 핵심 요소인 원부자재의 수입이 유지되거나 증가한 2019년에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경공업 부문 투자는 여러 지역의 김치공장 등 식품가공업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3. 건설업 및 서비스업

건설부문은 2018년과 달리 생산활동이 다소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평양시에서의 대규모 주택 건설은 없었지만 물길공사와 간척지 사업 등 대규모 토목공사가 지속되는 가운데 단천발전소와 어랑천발전소 등 중대규모 수력발전소의 건설이 가속화되고, 관광단지 건설이 원산갈마해안관광단지, 삼지연2단계 및 양덕지구온천관광지구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중평남새온실농장 건설이 추진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대규모 건설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단천발전소 건설은 2단계에 걸쳐 총 160km의 수로 건설을 포함하는 대규모 토목공사로, 2019년에는 1단계 수로 건설의 상당 부분이 진행되었는데 1단계 공사만 하더라도 북한이 최근에 건설한 어떤 수력발전소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오랫동안 마무리하지 못하던 어랑천발전소 팔향언제(댐)도 2019년에 완공되었다.

북한의 관광지구나 온실채소전용농장의 건설은 주변의 주택과 공공기관의 개량 및 건설, 도로와 철도의 건설, 산업시설의 건설과 현대화 등 일종의 복합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예를 들어 양덕온천관광지구 개발사업은 온천관광시설 건설과 함께 수천 채의 주택 건설, 석탕온천역-온정역 철도 신설, 수십km 도로 확충 사업, 그리고 지방산업공장의 건설과 같이 추진되었다. 삼지연 꾸미기사업에서도 수십km의 해산-삼지연 철도 확장과 수천 채의 살림집 건설, 삼지연감자가루공장 등 산업시설 건설이 같이 이루어졌다. 중평온실남새농장 건설도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상당한 규모의 주택 건설과 도로 및 철도의 확충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대규모 산업설비 투자는 순천린비료

공장을 제외하고는 전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북한의 건설이 발전소 건설 및 관광단지 조성에 집중된 것은 발전능력 제고 및 관광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적 목적과 함께, 대북 경제제재로 외화 부족이 심화되고 설비와 소재의 수입이 통제된 상황에서 북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책이 건설경기 확충이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서비스산업은 대외무역 감소에 따른 마이너스 요인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의한 플러스 요인이 교차하고 있다. 다만, 대외무역이 큰 폭으로 감소한 2018년과 달리 2019년에는 전년에 비해 대외무역이 10% 이상 증가하였으며, 소득 수준 감소폭도 전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무역 감소에 따른 상업·유통과 운송 서비스의 감소폭은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중국인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세는 2018년에 이어서 2019년에도 지속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에 따른 숙박, 음식료, 여객운송 서비스의 증가 추세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2018년에 이어서 2019년에도 북한의 서비스산업은 전년에 비해 소폭이나마 성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III. 평가 및 전망

2019년 북한의 산업 및 실물부문은 2018년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 폭은 크게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⁹⁾.

연중 지속된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로 수출광업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수출 비중이 컸던 철광업 등에서는 내수용 생산 기반에도 영향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요 증가 등으로 금속공업은 전년도 수준은 유지한 것으로 보이지만, 금속 소재와 부품의 수입 감소로 기계공업의 둔화가 심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화학공업도 잘해야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건설 확대에 따라 건설자재의 생산은 적지 않게 증가하였으며, 원부자재의 수입 증가로 경공업은 섬유 의류와 식품가공을 중심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성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제조업 전체로는 전년에 비해 소폭 후퇴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수량 부족으로 수력발전량은 감소하였지만 설비 확충과 개보수, 그리고 연료탄 공급 확대 등으로 화력발전량이 증가하여 전체 발전량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형 발전소 건설과 관광지구 개발 등으로 건설활동은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서비스산

9) -1% 정도 성장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중화학공업의 하락 및 건설업 등의 상승 폭에 따라서는 0% 성장 혹은 소폭이지만 플러스 성장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업은 무역감소와 외국인 관광 확대가 상반된 영향을 미친 가운데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장률과 별개로 북한산업의 질적 약화는 심화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금속 소재 및 기계류의 수입 통제에 의한 기계공업의 둔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질적 약화가 지속되면 조만간 심각한 양적 후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2019년에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대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으며, 그에 따라 대북 경제제재 역시 완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심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장 심리의 위축을 초래할 급격한 정책 전환을 하지 않은 가운데 건설부문에 집중된 북한 정부의 정책기조, 대북 경제제재 대상이 아닌 중간재와 소비재의 수입 지속, 북중 국경지대에서의 비공식적 무역행위의 부분적 회복,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의한 서비스부문의 활성화 등이 지속되는 경제제재로 불안한 가운데에도 북한경제가 급격한 위기나 혼란에 빠져들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미관계의 개선과 대북 경제제재의 변화가 없다면 2020년에도 북한경제가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관광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기후 조건에 크게 의존하는 농업이나 발전 부문을 제외하고는 제조업을 비롯하여 어떤 산업도 성장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 개선 가능성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해외 파견 노동자의 귀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20년에도 20억달러 정도의 무역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올해와 같은 수입규모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관광부문의 흑자가 확대되더라도 무역 흑자를 상쇄할 수준은 되기 어렵다. 따라서 내년부터 완만하지만 수입 감소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원부자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공업의 후퇴도 불가피할 것이다. 수입 설비와 부품을 국산 설비와 부품이 대체하지 못한다면 광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의 생산 기반 약화도 심화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신년사를 대신해서 발표한 전원회의 결정문에서 절약과 질의 제고를 가장 우선시한 것은 올바른 정책 방향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북한의 '선질 후양' 정책을 북한의 연구개발부문과 자본재부문이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다.

다만, 북미간에 긴장이 급격하게 고조되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 한 북한경제가 위기나 붕괴 국면에 처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중 국경지대에서의 비공식적 무역이 어느 정도 완충작용을 하고 있으며, 시장에 대한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자원 투입 확대보다는 체질 개선을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북한 정부의 정책기조가 적어도 경제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작용은 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노동신문』, 「발전설비 대보수에 력량을 집중」, 2019. 9. 24.
_____, 「겨울철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자」, 2019. 10. 3.
_____, 「다양한 에네르기자원을 적극 개발이용」, 2019. 11. 4.
_____, 「련관단위들의 설비, 자재보장실태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2019. 10. 22.